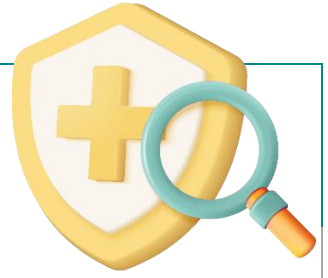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9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5년 09월 02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9월 종양 학회 본격 시작, 비만치료제 테마 속 종목 선별

1) 9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9월부터 종양 학회 본격 시작.** 9월6일 WCLC(세계폐암학회), 10월17일 ESMO(유럽종양학회), 11월3일 World ADC(세계ADC학회), 12월6일 ASH(미국혈액학회) 등 9월부터 주요 종양 학회가 매월 이어질 전망이다. 9월 WCLC에 유한양행/리가켄바이오 등, 10월 ESMO에 한미약품/보로노이/리가켄바이오(KUSDA)/지아이이노베이션 등이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회에 참석하지 않는 일부 기업의 경우, 항암제 임상 데이터 발표 보다 11월3일 BIO-Europe에 참석하여 파트너십 확보에 전념할 계획(인투셀/셀비온 등)이니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 제약사는 미국 정책 변수 이어질 것.** 연간 및 월간 수익률에서 바이오텍 대비 제약사의 주가는 비교적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등도 모두 주가가 부진한 것을 고려하면 1) 한국에 부과되는 의약품 관세가 아직 불확실하고, 2) 미국 약가 인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미뤄진 관세 결정이 9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는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9월29일까지 약가 인하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가한 바 있어, 9월에도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는 이러한 불확실성 이벤트에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지속형 주사 비만치료제 주가 변동성 강화.** 8월은 지투지바이오의 상장과 인벤티지랩의 베링거인겔하임과의 MTA 계약 체결로 장기지속형 주사 비만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강하였다. 시장은 펩트론-릴리, 인벤티지랩-베링거인겔하임, 지투지바이오-노보노디스크로 파트너십 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하나의 빅파마가 수 개의 기업과 제형 개발을 시도할 수 있고, 하나의 제형화 기업이 본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경우 다른 제형화 기업의 주가에도 (긍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펩트론의 본계약 체결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지투지바이오도 1개월 락업이 9월14일 해제될 예정이므로 9월에도 주가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비만치료제 테마 지속하는 중 종목 선별 주의.** 장기지속형 주사 비만치료제 종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기존 비만치료제 기업들이 후기 임상 데이터에서 실망스러운 숫자를 공개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이벤트가 잦았다(ex. Viking, Lilly 등). 면밀히 검토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ex. Lilly의 Orforglipron) 주가는 수치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니 종목 선별과 비중 조절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9월 추천 종목

- 9월 제약사 Top pick: 한미약품.** 미국 정책 변수에 대한 영향이 적으면서, 하반기 비만치료제 R&D를 보유하고 있다. HM15275(삼중), HM17321(근육증가)에 저분자화합물 경구 비만치료제인 HM101460을 추가하면서 3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9월 EASD에 공개하는 등 활발한 R&D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9월 내 에페글레나타이드(비만치료제)의 3상도 계획대로 종료될 예정으로, 회사는 출시 첫 해인 2027년 1,000억원 연매출 달성 목표를 세웠다.
- 9월 바이오텍 Top pick: 리가켄바이오.** 바이오텍의 주가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도 리가켄바이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9월 WCLC에서 CEACAM5 표적 신규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10월 ESMO(LCB14, IKSUDA), 12월 ASH(LCB71, Cstone) 등을 앞두고 매월 촘촘하게 임상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예의 주시할 시기이다.
- 관심종목: 디앤디파마텍.** Metsera의 2025년 계획 중 실현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경구 비만치료제(MET-097o, MET-224o)의 임상1상 진입이다. 9월3일(현지시간 3:20-3:50 PM EDT)에 투자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구 비만치료제 개발 의지를 IND 신청 타임라인으로써 보여준다면 디앤디파마텍 주가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달(8월) 하나 제약/바이오 리포트

[Monthly] 8월 하반기 바이오텍 상승 준비 (8/1)

- 하반기 금리 인하와 매월 학회가 이어질 예정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 9월부터 본격적인 학회 발표 시작되기에 8월이 가장 저렴한 시기일 것
- 투자아이디어 ①실적발표, 매출 상승세가 예상되는 SK바이오팜. ②8월 임상 2상 발표 스케줄이 뚜렷한 셀비온. ③ 수주잔고 꾸준히 쌓이는 에스티팜, 핵심 기술력이 뚜렷한 인투셀

➢ URL: <https://bit.ly/47VdczL>

[기업분석] SK바이오팜(326030): 2Q25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엑스코프리 처방 우상향 (8/6)

-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 급증으로 2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기록. 관세 대응과 무관한 매출로 연간 엑스코프리 매출 가이드스 4.2억~4.5억 달성 확률 높아짐
- 3세대 뇌전증 치료제 중 압도적 반응을 보이기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매출 우상향 전망
- 연내 두번째 Product 도입할 의지 확인

➢ URL: <https://bit.ly/4ncgaV6>

[기업분석] 셀비온(308430): 8월 말 Top line 결과를 기다리며 (8/6)

- 환자가 증가할수록 더 우수한 ORR 결과 확인 중. 환자수가 두 배 증가하는 동안 ORR 값이 16%p 증가
- Pluvicto 대비 현저하게 낮은 혈구 독성으로, Keytruda 병용 임상에서 더 우수한 효과 발휘할 것으로 예상
- Lu-Pocuvotide의 우수한 효과, 낮은 부작용 고려하면 조건부허가 승인될 가능성 존재. 국내 첫 RLT 신약 출시와 기술이전 기대 유요

➢ URL: <https://bit.ly/4gdcjlp>

[산업 인텔] 비만치료제 NEXT STEP 1. 장기지속형 주사제 (8/7)

- 비만치료제 경쟁 심화에 따라 환자 편의성 높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쏠리는 관심
- 펩타이드를 API로 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재현하기 매우 까다로워 상업화 scale로 실현 가능성을 확인 후 본계약 진행
-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인 펩트론, 인벤티지랩, 지투지바이오 분석

➢ URL: <https://bit.ly/3HUKIM2>

[산업분석] 노보노디스크와 릴리의 주가는 회복할 수 있을까(8/13)

-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은 일라이 릴리의 Tirzepatide와의 경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 다만 '26년 상반기에 후속 제품인 Cagrisema의 임상 결과 발표 예정으로 관심 유지할 필요 있음
- 일라이 릴리의 실적은 서프라이즈 기록했지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 Orforglipron의 기대에 못 미치는 3상 결과에 추가 하락. 다만, 저분자 화합물로 낮은 원가와 간독성 또한 관찰되지 않아 계획대로 FDA 허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 이외에도 삼중작용제, 항암제, 알츠하이머 등 다수 파이프라인 보유

➢ URL: <https://bit.ly/46fwm26>

[Biweekly] 8월 실적발표 종료 후 바이오텍에 몰리는 관심 (8/19)

- 의약품 관세는 9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 15%로 발표된다면 추가 타격 없을 것
- 실적 발표 이벤트 종료로 바이오텍에 집중되는 관심. 9월 6일 WCLC부터 EASD, ESMO 등 주요 학회 이어질 예정. 더불어 하반기 금리인하 한 차례 이상 있을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나 지속적으로 관심 유지
- 관세보다 약가인하로 인한 불확실성 높아짐. 매출보다는 임상 단계 상승으로 인한 마일스톤 기대감 높은 바이오텍(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디앤디파마텍 등), 약가인하 리스크가 낮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추가 영향 적을 것

➢ URL: <https://bit.ly/4lZDg05>

[산업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인투셀, 알테오젠 관련 코멘트 (8/25)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일정이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 분할 비율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프스홀딩스의 분할 후 기업가치와 시장이 기대하는 기업가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여 분할 일정이 미뤄진만큼 주가의 횡보도 길어질 것
- 삼성에프스홀딩스와 인투셀 공동개발현황 확인. 분할 일정에 맞춰 차세대 modality에 대한 R&D 행사 있을 가능성 높기에 하반기 인투셀을 주시할 필요 있음
- 알테오젠 PCR 진행 관련 세부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최종 심결일은 2026년 6월 2일로 변동 없음. 다음달인 9월23일 키트루다SC 제형 FDA 승인 예정일로 하반기 신규 L/O에도 영향 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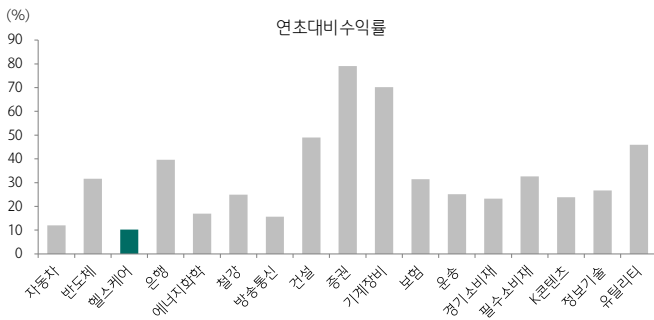
➢ URL: <https://bit.ly/4mLWasw>

[산업분석] 유럽을 통해 전망하는 미국 관세, 그리고 약가 인하 (8/26)

- 미국-유럽 의약품 관세는 브랜드 의약품에만 15% 부과, 제네릭과 그 원료에는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며 관세 적용 받지 않음
- 국내 관세 부과 방식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 미국향 바이오의약품 CDMO 경우 단기적 영향 없으나 장기적으로 용역 매출에 전가 될 수 있으며 미국향 브랜드 의약품 판매 기업은 생산 위치 별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대응할 것, 바이오시밀러 판매 기업은 관세 영향력이 가장 적을 것
- 미국 약가는 PBM, 보험사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지므로 강제적인 약가 인하는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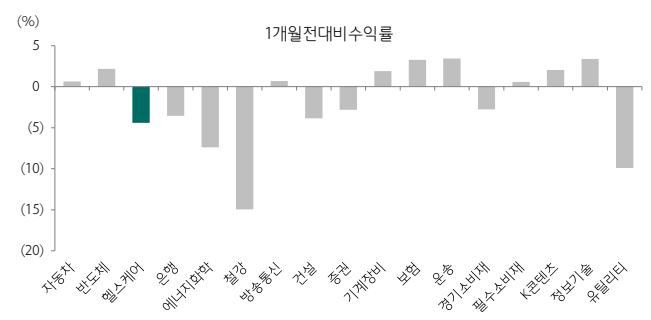
➢ URL: <https://bit.ly/3JDhXr>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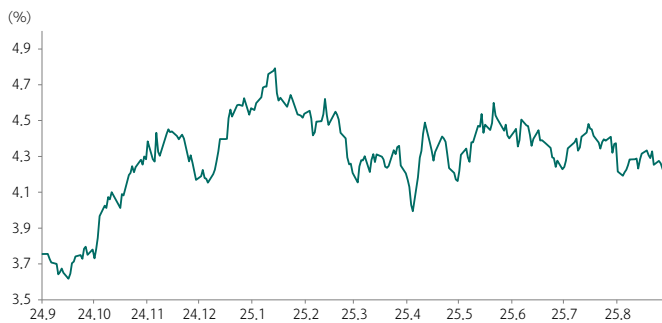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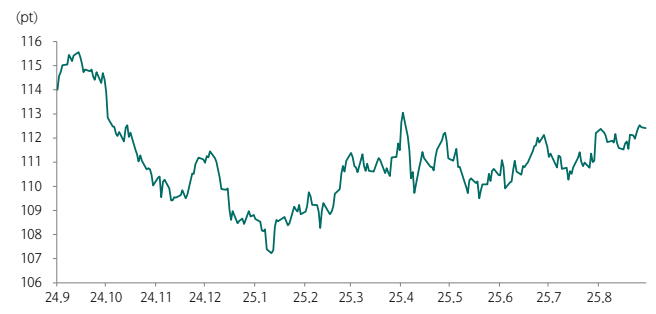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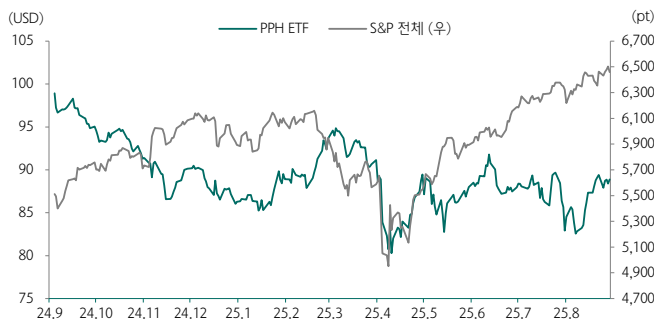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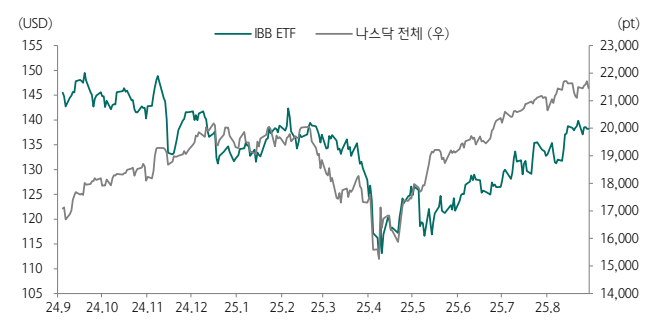
도표 5.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주: 8/29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7.38%), Johnson & Johnson(11.48%), Novartis(7.93%),
MSD(6.13%), Novo Nordisk(6.13%), Abbvie(5.01%), AstraZeneca(5.01%), Pfizer(4.64%),
Sanofi(4.64%), McKesson(4.3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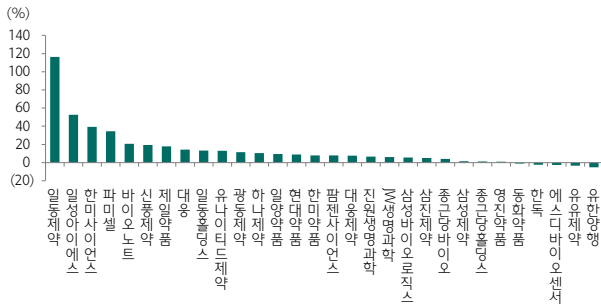
도표 6.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주: 8/29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7.36%), Amgen(7.10%), Regeneron(6.64%),
Vertex(6.26%), Alnylam(6.15%), IQVIA(3.52%), argenx SE ADR(2.96%), Mettler-
Toledo(2.89%), Insmed(2.60%), Natera(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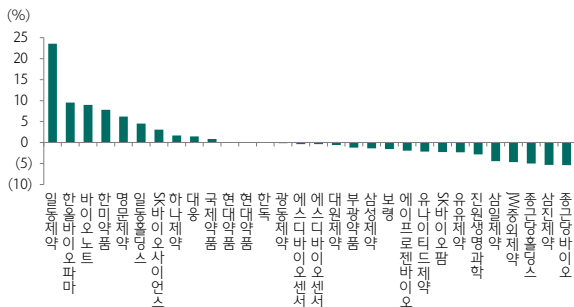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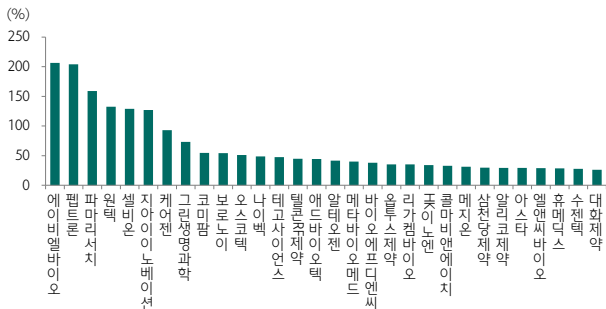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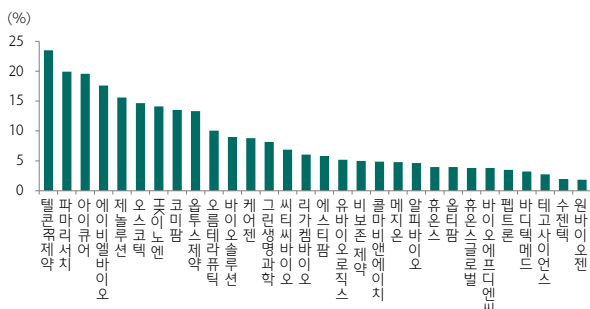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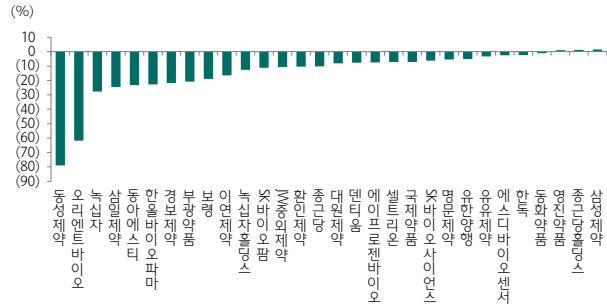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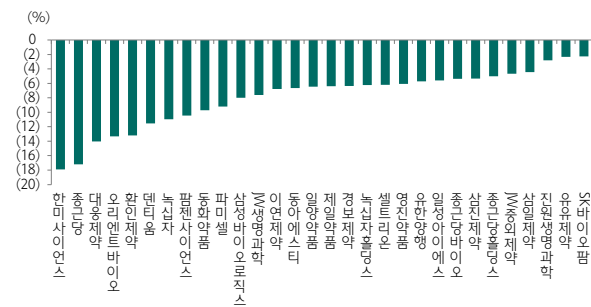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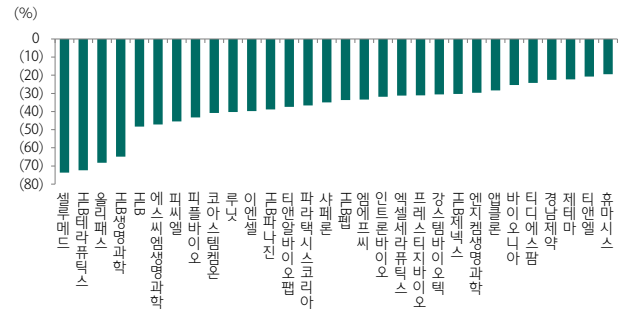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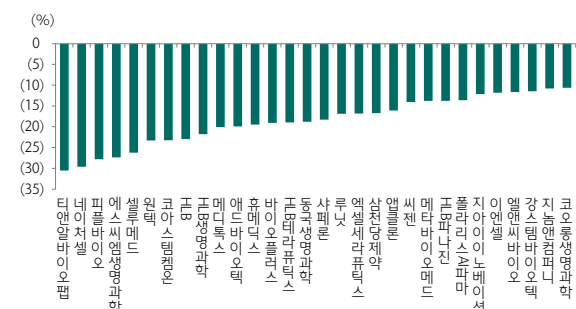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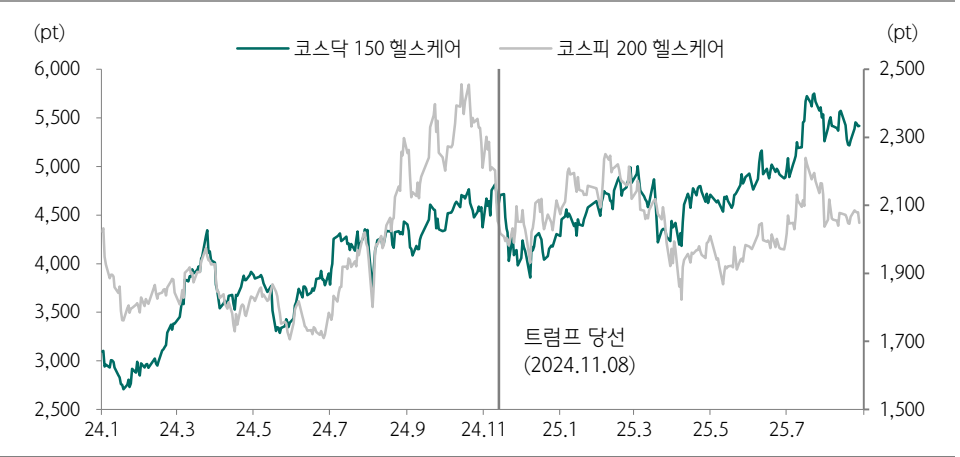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5. 트럼프 당선 전후 코스닥과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



주: 8/29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8월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일 8/18 이후)

[8/19] 대웅제약, 비만 R&D 파이프라인 재편 (마이크로니들 패치)

- 마이크로니들 비만치료제 패치 개발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공개를 꺼려하던 대웅제약이, 비만 R&D 파이프라인을 재편하며 본격적으로 패치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 패치에 적용될 기술은 대웅테라퓨틱스의 “클로팜(CLOPAM)”으로 피부에 닿은 뒤 녹으며 약물이 방출되는 용해성 타입. API로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적용되고, 사람으로 한 Pilot PK에서 주사제 대비 80% 수준의 BA를 확인함. 다만 개발 극초기 단계이고, 대량생산 및 원가를 절감 문제, 장기지속형 및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출시됨에 따른 시장성 문제, 타 API 대비 세마글루타이드 효능의 한계 등으로 시장성 평가도 필요함.

[8/20] Viking Therapeutics 경구용 비만치료제 VK2735의 임상2상 결과 발표 후 주가 -42% 하락

- 경구용 비만치료제 VK2735의 임상2상(VENTURE-Oral)의 톱라인 결과: 최고용량(120mg) 기준 13주간 체중감소를 12.2%로 1차 평가지표를 달성하였으나, 부작용 99%,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위약 보정 후) 20%로 사업성을 우려하여 주가 크게 하락. Orforglipron이 임상3상(ATTAIN-2)에서 최고용량(36mg) 기준 72주간 체중감소를 11.2%,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위약 보정 후) 7.7%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우려되는 결과.
- Viking은 13주간 투여하였고, Orforgliprondms 72주간 투여하였으므로 짧은 기간에 높은 체중감소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임. 그러나 Viking은 30mg부터 2주간 30mg씩 증량하는 titration을 하였고, 펩타이드계 약물임에도 기대와 달리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율이 높아 실망감이 컸음. 게다가 Viking은 지금까지의 임상은 공복 투여로 진행하였고, Orforglipron은 음식/물 섭취 제한 없이 임상 진행. Viking은 MASH 치료제인 VK2809의 개발을 기대.

[8/21] 에스티팜, Ionis pharma의 DAWNZERO™(donidalorsen) FDA 승인

- 에스티팜의 Oligonucleotide CDMO 고객사인 Ionis Pharmaceuticals가 HAE(유전성혈관부종)의 RNA 표적 치료제인 Donidalorsen의 FDA 승인을 획득함.
- Ionis의 신약 FDA 승인에 따른 상업화 물량 확대와 reference 확보로 에스티팜의 수주잔고는 더욱 누적될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 4분기 제2올리고동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매출 증가세도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트럼프가 공화당 보수층 지지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생물보안법 재점화될 가능성 있고, 이 경우 국내 CDMO 기업으로서 에스티팜 수혜도 기대할 수 있음

[8/21] 트럼프, 유럽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 15% 부과 결정

- 미국은 유럽에 대한 의약품 관세를 당초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와 일치하여, 최대 15%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걸로 결정함. 미국 내 제네릭 약가는 OCED 국가 평균의 67% 수준으로 오히려 더 저렴한 수준이고, 제네릭 비중이 전체 처방수의 90% 수준에 이르므로 제네릭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부합한 결과.
- 제네릭에 바이오시밀러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브랜드 의약품에만 부과된 배경을 고려하면 바이오시밀러에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유럽에 대한 의약품 관세 결정은 한국도 품목관세 최대 15%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의약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됨. 우리는 관세 15%의 경우 국내 상장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8/2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및 재상장일 변경 (10/29 →11/24)

- 증권신고서 제출과 함께 분할과 관련된 주요 일정이 변경됨.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이 기존 9월16일에서 10월17일로 변경, 매매거래정지 예정일도 9월29일에서 10월30일로 변경됨. 이에 따라 존속법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과 신설법인인 삼성에피소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로 변경
- 현재 분할 비율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소홀딩스의 기업가치가 분할 후 기업가치와 괴리가 존재한다고 판단. 분할 일정이 미뤄진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횡보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

[8/26]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내부 체계 정비 후 추진

-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집단 청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주주 공고문을 게재. 코스피 이전 상장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며 내부 체계 정비 필요성을 밝힘. 추가 L/O 등 사업 진행에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9월 중 이사회 결의, 10~11월 임시 주총, 올해나 내년 준비가 완료대로 코스피 이전 상장심사 신청할 예정
- 코스피 이전 상장은 키트루다SC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한 회사의 의견이 명확해짐으로써 추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참고로 키트루다SC의 FDA 승인은 9월23일 경으로 예상하고, PGR도 Merck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FDA 승인 후 키트루다SC는 예정대로 곧바로 출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

[8/30] 인투셀, 에피소와의 공동개발 관계 증명 및 자체 개발 ADC 후보물질 임상1상 신청

- 8월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소홀딩스의 분할 재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공동개발 중인 기업으로 인투셀을 기재하면서, 에이비엘바이오와의 계약 파기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소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우려를 다소 해소함. 증권신고서 상에 NxT3에 대해 에피소가 직접 기술이전을 추진 중인 것은 아직 “추진 중”이므로 과잉 해석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 분할 재상장될 에피소홀딩스의 기업설명 자료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써 OPHAS 링커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인투셀은 자체 개발 ADC인 ITC-6146RO에 대해 국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 신청서를 제출함. 타겟은 B7-H3, OPHAS 링커 적용, 페이로드의 정상세포 독성을 낮추기 위한 PMT 기술을 적용. 페이로드를 Nexatecan 계열이 아닌 Duocarmycin을 사용하였으므로, 임상1상 중간 결과에서 안전성만 확인하더라도 최근 특허 이슈로 인한 추가 L/O 우려를 불식시키고 OPHAS 링커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8/30] 중국 바이오 기업, 미국 생물보안법안 로비 진행 중

- 미국의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우시애크이 2024년 2분기부터 외부 로비기관을 통한 로비 금액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자사의 미국 법인을 통해 직접 로비에 참가해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7월31일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한 바 있음. 2026년 회계년도 NNDA(국방수권법안)에 이 개정안 심의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휴회기를 거친 후 NNDA에 대한 상원 의결은 9월2일(현지시간)에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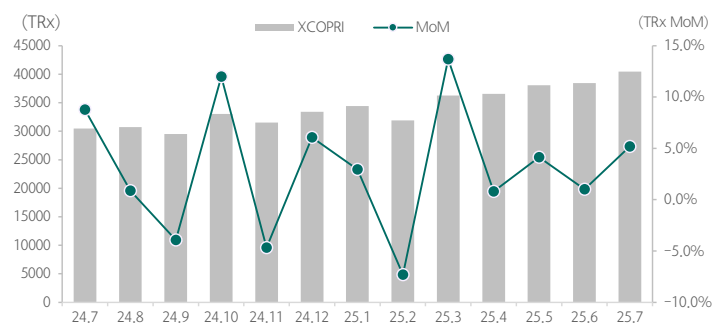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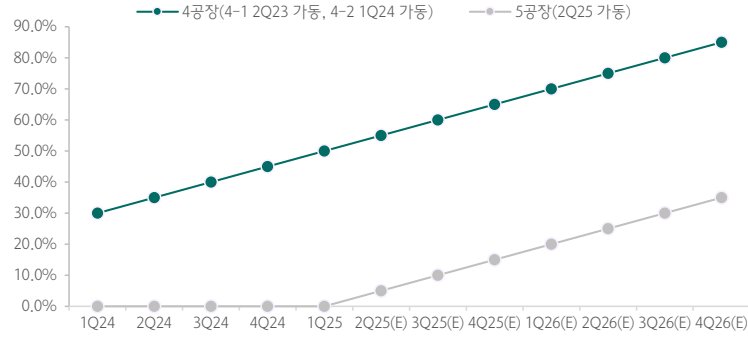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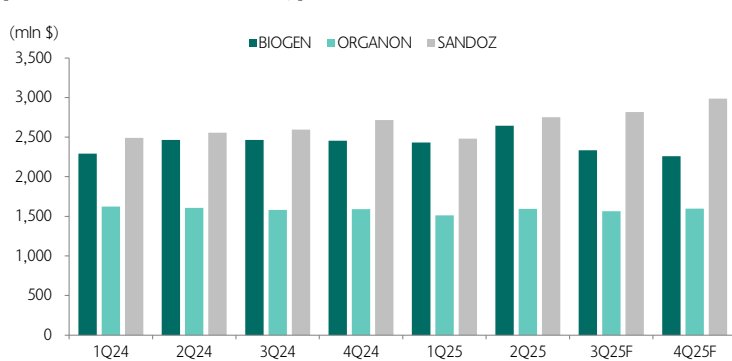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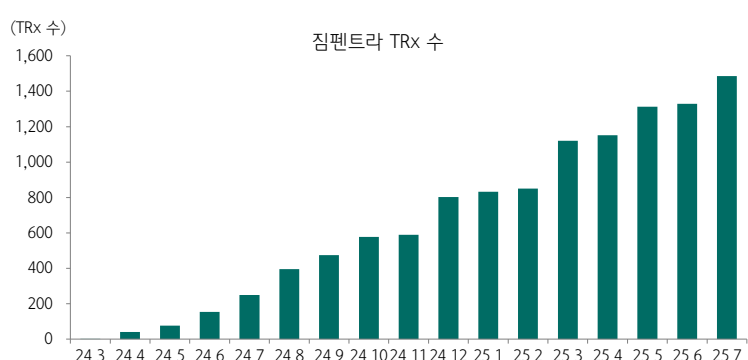
도표 16. 하반기 주요 학회 (9월 주목할 학회는 음영 표시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관련기업*
9월	09월 06일	WCLC (세계폐암학회)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Barcelona, Spain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에스티큐브 등
	09월 15일	EASD (유럽당뇨병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Vienna, Austria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10월	10월 17일	ESMO (유럽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Berlin, Germany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지아이이노베이션, 프레스티지바이오 등
	10월 27일	PODD (약물전달체 파트너십 행사)	Partnership Opportunities In Drug Delivery	Boston, USA	펍트론, 인벤티지랩, 지투지바이오 등
11월	11월 03일	World ADC (세계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USA	인투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등
	11월 03일	BIO-Europe (유럽바이오파트너십)	BIO-Europe 2025	Vienna, Austria	인투셀, 셀비온 등
	11월 04일	Obesity Week (세계비만학회)	Obesity Week	Atlanta, USA	한미약품, 대웅제약, 디앤디파마텍, 동아ST 등
	11월 05일	SITC (면역항암학회)	Annual Meeting & Pre-Conference Programs	Maryland, USA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이노베이션, 지씨셀, 에이비온 등
	11월 06일	ACAAI (미국면역학회)	American College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Orlando, USA	셀트리온, 지아이이노베이션, 유한양행 등
	11월 07일	AASLD (미국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Washington, DC, USA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메드팩토, 동아ST, 등
12월	12월 01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San Diego, USA	아리바이오, 뉴라클 등
	12월 04일	AES (미국뇌전중학회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Annual Meeting	Atlanta, USA	SK바이오팜, 씨티씨바이오 등
	12월 06일	ASH (미국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Orlando, USA	Cstone(리가켄바이오/에이비엘바이오),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 등
	12월 09일	SABCS (샌안토니오 유방암회의)	San 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	San Antonio, USA	-

주: 관련기업은 2024년 참가기업과 관련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을 고려하여 기재함. 밑줄은 2025년 참가가 확인된 기업임.

자료: 하나증권

도표 17. 국내 주요 제약사의 수출 비중, 주요 품목, 관련 지표 (8/18 Biweekly 발간 이후 변동 없음)

기업명	수출 비중	주요품목	관련 지표
SK바이오팜	100.0%	엑스코프리(US): 총 매출 80%	[Xcopri 미국 처방수와 월별 변동률]  (TRx) (TRx MoM) *자료: Bloomberg
삼성바이오로직스	97.1%	- 로직스: CDMO - 에피스: BS	[로직스 공장 가동률 (추정)]  4공장(4-1 2Q23 가동, 4-2 1Q24 가동) 5공장(2Q25 가동) *주: 1공장~3공장 100% 가동. 가동률이 유의미한 매출(상업화 매출)로 반영되기까지 약 1.6년에서~2년의 lagging time이 존재함 (PPQ 배치 → 상업화 배치) *자료: 하나증권 (회사 가이드선 없음, 매출로 추정함 값) [에피스 파트너사 분기 매출 전망]  (mln \$) BIOMGEN ORGANON SANDOZ *각 회사 매출의 Break Down 알 수 없음. 다만 '24년부터 Sandoz를 파트너사로 도입, Organon과 Biogen과는 '23년 이후 신규 파트너십 없음.
셀트리온	89.7%	집펜트라 매출액: 4Q24 280억, 1Q25 130억, 2Q25 230억	(TRx 수) 집펜트라 TRx 수  * 자료: Bloomberg

녹십자	37.3%	- 주: 알리글로 - 부: 알부민 등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글로벌 수출 동향] * 자료: Trass (국내지역 : 충북 청주시/ 품목 :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높은 중량과 높은 금액이 일치할 때 알리글로 향으로 해석
유한양행	19.8%	기술료 수익, 원료 등	• 해외사업부문의 매출은 유한화학 원료 생산 매출 및 그 원료의 수출 그 외 라이선스 수익 [Rybrevant, Lazcluze 월 처방수 (좌,우: TRx)]
에스티팜	93.9%	제품(API) 매출 비중 : 수출 매출 90.9%	• [분기별 누적 수주잔고 및 시가총액] *국내 전체 미국향 특신 전체 수출량 중, 화성시 수출량이 매월 90% 전후반 유지 중 * 자료: Trass (품목 : [3002491000] 독소, 독소이드(toxoid), 크립토크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국내지역 : 경기 화성 시/ 국가 : 미국)
대웅제약	20.0%	- 나보타 수출액 : 총 수출 86% - Evolus 가이드نس : -14% 하향	[화성시(항남 나보타 공장 소재) 미국향 특신 수출 동향]

주: 수출 비중은 Q25 기준
자료: 각 그래프에 표시, 그 외 Dart,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5.08.29 기준)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Q24	2Q25	3Q25F	2024	2025F	2Q24	2Q25	3Q25F	2024	2025F
셀트리온	38,705	874.7	961.5	1,133.8	3,557.3	4,245.5	72.5	242.5	339.7	492.0	1,150.2
삼성바이오로직스 (TP: 1,450,000원)	71,245	1,156.9	1,289.9	1,538.5 (F. 1,535.8)	4,547.3	5,728.5 (F. 5,757.7)	434.5	475.6	496.0 (F. 626.6)	1,320.1	1,924.0 (F. 2,146.8)
유한양행	9,076	528.3	579.0	602.6	2,067.8	2,244.7	18.5	49.9	36.9	54.9	115.3
녹십자	1,516	417.4	500.3	497.5	1,679.9	1,833.6	17.7	27.4	33.6	32.1	70.7
한미약품 (TP: 400,000원)	3,882	378.1	361.3	396.8 (F. 402.9)	1,495.5	1,577.7 (F. 1,581.5)	58.1	60.4	60.3 (F. 71.5)	216.2	245.3 (F. 269.0)
대웅제약	1,576	360.5	405.5	381.2	1,422.7	1,507.1	42.3	57.9	43.7	147.9	186.3
HK이노엔	1,363	219.3	263.1	270.1	897.1	1,096.9	24.4	19.5	28.3	88.2	108.5
종근당	1,103	396.8	434.9	nr	1,586.4	1,755.0	35.8	23.6	nr	99.5	78.0
휴온스글로벌	569	209.7	212.7	nr	813.5	nr	30.4	25.3	nr	97.0	nr
동아에스티	414	172.4	194.0	187.5	697.9	716.6	-6.0	-5.8	11.7	-25.0	30.8
보령	716	255.6	251.5	nr	1,017.1	nr	20.1	25.4	nr	70.5	nr
SK바이오팜 (TP: 130,000원)	7,722	134.0	176.3	182.7 (F. 174.0)	547.6	702.3 (F. 668.2)	26.1	61.9	44.0 (F. 52.8)	96.3	171.8 (F. 180.1)
동국제약	762	203.5	233.5	223.8	812.2	912.4	19.2	22.1	23.5	80.4	92.9
에스티팜	1,866	44.6	68.3	66.3	273.8	329.0	-3.1	12.9	6.7	27.7	48.3
셀트리온제약	2,258	117.2	131.3	nr	477.8	nr	9.4	15.5	nr	37.2	nr
JW중외제약	499	172.3	191.1	200.1	719.4	791.6	11.6	25.0	26.1	82.5	95.0
일동제약	789	152.2	138.5	nr	614.9	nr	1.0	0.6	nr	13.1	nr
대원제약	294	138.0	143.9	172.7	598.2	677.9	-1.4	-1.4	11.6	28.2	42.0
제일약품	197	173.2	137.6	nr	704.5	nr	-15.0	4.7	nr	-18.9	nr
삼천당제약	4,513	54.9	56.9	nr	210.9	nr	2.1	-1.1	nr	2.6	nr
바이넥스	527	31.5	44.5	46.4	130.1	182.9	-8.3	1.0	2.2	-30.8	8.0

주1: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종목 선정: 2025년 3월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조 이상 +a(임의) 중 선정 (제외 종목: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

자료: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1,450,000원, 유지): 하반기 upside 유효하나, 분할 재상장까지 횡보 예상

- 동사의 주가는 분할 결정 이후 정체된 상태인데, 의약품 관세 대한 불확실성 영향도 있지만 분할 이벤트도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
- 분할 비율에 따른 존속법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설법인인 삼성에프스홀딩스에 대한 기업가치가 분할 후 기업가치와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분할 일정이 11/24(기준 10/29)로 미뤄진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의 횡보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함
- Upside: 로직스는 관세 15% 수준인 경우 주가 등 영향 적을 것, 밀려있던 신규 수주 건 하반기에 계약할 것으로 전망. 재상장일 이후 6공장 증축, 미국 설비 투자 언급될 것. 에프스는 기업가치가 컨센서스 이하로서 현재의 주가 upside를 제한하는 요소이나,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신규 파이프라인 등 공개할 것.

알테오젠 (TP 550,000원, 유지): 시기의 문제일 뿐 코스피 이전 계획은 분명함, 하반기 추가 L/O 기다림

- 분쟁 현황: 할로자임의 특허 보정 시도 기한 변동(최초 시도 9/9 → 9/23으로 재연장, 재시도 2026/01/27). 14개의 PGR은 예상대로 최초의 PGR과 같은 스토리로 흘러가는 중. 패밀리 특허이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
- PDUFA로 키트루다5C의 FDA 빠른 승인 기대(9월23일). 승인 획득 시 Reference가 되어 신규 파트너사들의 강한 유인 요소로 작용할 것.
- ALT-B4 공급 안정화와 자체 개발 BS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예정 (토지는 보유 상태로, 공장 건물 및 설비 투자로 2,500억원 계획).

리카캠바이오 (TP 150,000원, 유지): 하반기 L/O 체결 기대감 유효, TP 상승을 위한 이벤트 기다리는 중

- 회사는 추가 L/O를 위해 ADC Bio Better 전략과 Target Exclusive Package Deal(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되,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로 파트너십을 시도하는 중. 하반기 기술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고, LCB14(KSUDA, HER2)와 LCB71(Cstone, ROR1)의 하반기 내 임상 데이터 공개가 신규 L/O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Upside: 바이오텍은 학술 대회 전후로 R&D 성과가 공유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 9월 WCLC(신규 타겟 전임상), 10월 ESMO(KS014), 12월 ASH(CS5001) 등 참석할 예정이니 타임라인 참고할 것. J&J에 L/O된 LCB84는 부작용 평가가 48개월이므로 2025.10.05 이후 P1 결과 공유될 것으로 판단되나, J&J의 R&D 현황 공유 이벤트나 중간 발표 가능성을 기대.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관심종목): 비만치료제에서 빠질 수 없는 대장주 중 하나, MASH가 결들여진

- MASH 치료제는 궁극적으로 Fibrosis 개선을 보여줘야 하고, 타라인 발표는 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다만 최근 FDA가 비침습적인 간경직도 측정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타라인 발표 전 24주 바이오마커 발표, 11월 AASLD 등의 이벤트가 주가 추가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Upside: Metsera의 경구치료제 IND 신청과 승인 이벤트가 하반기에 남아 있음. 3Q내 승인까지 달성한다면 12월 내 4주차 투여 결과 확인까지 기대할 수 있음. 디앤디파마텍의 비만치료제는 Metsera가 개발하고 있어 참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11월 Obesity Week을 앞두고 글로벌 비만치료제 개발사들이 R&D 성과 발표를 예고할 것으로 전망되어 테마 지속될 것이고, Metsera가 경구제 파이프라인(MET-097o, MET-224o) 데이터를 들고 Obesity Week에 참여한다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셀비온 (Not Rated, 관심종목): 9월 초 전립선암 치료제 Top Line 발표

- 8월 말 예상된 타라인 발표는 9월 초로 미뤄진 듯. 그러나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ORR 값이 올라가는 경향 (38.5% → 47.54%)을 보였으므로 여전히 타라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11월 CSR 보고서 수령 후 조건부허가신청 할 것. 이 경우 26년 하반기 국내 출시 기대할 수 있음. (현재 플루빅토 국내환자 1회 투여 3천만원, 임상 기준 최대 6회 투여)
- 6월23일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신청. 하반기 내 임상 승인 후 26년 상반기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 중간 결과 성과에 따른 Merck로의 기술이전도 기대.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mOS를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아직 임상 계획서가 공개되기 전이나, Merck의 시장성 확대를 위해서 환자군 확장임상까지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한미약품 (TP 400,000원, 유지): 별도와 자회사 모두 하반기 계획이 다 있다, 비만 치료제 이벤트도 대기 중

- 한미약품은 별도 포함 각 자회사 모두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별도의 로수젯을 포함한 메인 파이프라인은 전분기 실적 수준은 유지하고 하반기 ETC 품목도 확대(프롤리아BS, 다파론 패밀리, 아모프렐 등)될 예정이고, 정밀화학도 CDMO 비중을 높여 이익이 개선되는 사업 구조 구축. 북경한미가 중국의 집중구매제도에 따른 실적 감소세가 컸으나, 하반기 자체 품목 개발과 집중구매제도 영향이 낮은 제품 도입을 시도하는 중으로 하반기 개선 기대.
- 하반기에는 HM15275, HM17321(근육 증가 파이프라인)의 각각 P2, P1 임상 진입 예정. 에페글레나타이드(아시아인 맞춤 비만치료제)의 임상 3상은 3Q25 내 종료로 예정대로 진행되어, 올해 내 타라인 결과 발표, 27년 상용화 기대. 회사는 출시 첫 해인 2027년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세움. 또한 9월 EASD에서 경구용 GLP-1 RA 저분자 화합물 파이프라인인 HM101460의 전임상 데이터 발표할 계획. MSD에 기술이전한 MASH 치료제인 에피노페그튜타이드의 P2 종료(결과는 1H26 발표 예상)도 대기 중.

SK바이오팜 (TP 130,000원, 유지): 편더멘탈 손상 없이 주가 하락, 2nd Product 도입 기대감도 유지

- 2Q25 매출액(연결) 1,684억원(YoY+25.7%), 영업이익 389억원(YoY+49.2%, OPM 23.1%)을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매출 상승 전망. 중국, 일본으로의 확장, 동아ST의 한국부터 아시아 시장 진출 진행 중이므로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음.
- 세노바메이트 간독성과 관련한 코멘트: 뇌전증 치료제 중 발작 freedom과 부작용에 있어서 Biviact가 가장 우수함. 엑스코프리의 부작용은 Briviact에 비해 이미 높은 편으로 시장에 인지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량 증가 속도는 Briviact 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 이는 엑스코프리의 반응률(50% 이상 발작 가능성 감소하는 환자 비율)이 3세대 중 가장 높기 때문으로 가장 큰 시장성을 가짐.
- SK바이오팜의 밸류에이션은 2nd Product를 배제하면 Peer 대비 높은 편.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환율도 낮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술이전을 해오기 적절한 시점에 도래한 것으로 전망. 동사는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편더멘탈이 손상된 바 없으나 주가는 과도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 관세는 15% 선에서 마무리될 것, 약가 인하는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여, 대외 이슈 안정화시 주가는 TP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IPO 주관사 업데이트): 면역 타겟을 포함한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도 증폭과 함께 재주목 받을 가능성 높음

- 하반기 GI 301 한국/일본 P2 IND 신청, 학술 대회 참석 (10월 ESMO) 예정. 이 때 빅파마들과의 기술이전 논의 하는 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간 수익률 감소폭이 과도한 경향. 학회 이벤트와 함께 데이터 업데이트만으로도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현재 GI 102: SC제형 P1b, 키트루다 병용 P1/2(초기),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인트셀 (Not Rated, 관심종목): 에피스홀딩스 증권신고서로 확인된 공동개발 관계, 자체 신약 임상1상 IND 신청

- 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인투셀과의 공동개발 관계는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 NxT3에 대해 직접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추진 중”으로서 NxT3 보다 우수한 후보 물질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이 필요 없을 수 있으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 ADC 업계는 페이로드의 내성과 약효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 중. OHPAS 링커는 페이로드 중합(conjugation)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페이로드 작용기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이며, ADC 생산 수율이 낮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링커와 뚜렷한 차별점을 가짐. 11월24일에 분할하게 될 에피스홀딩스가 OPHAS 링커가 적용된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경우 동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걷어내고 주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아울러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 임상1상 IND를 신청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펩트론 (Not Rated, 관심종목): 국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대장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으나, 필요한 조건과 데이터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
-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출시도 가까워지고 있으며 Teva는 리라글루타이드(삭센다)의 제네릭을 이미 출시하는 등 주1회 비만치료제 주사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월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이 필수가 되고 있는 분위기. 이에 따라 Scale-up/out 실현 가능성까지 평가한 상태인 펩트론과의 본계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아울러 하반기에 펩트론이 실제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 장기지속형 주사제형 개발사인 인벤티지랩과 지투지바이오도 각자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기대감이 실릴 수 있으니 참고.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하반기 및 2026년 이벤트(2025.08.29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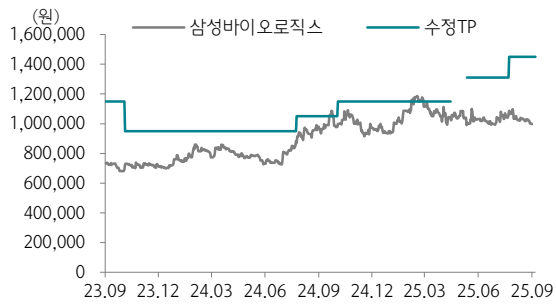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3Q25	4Q25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450,000	1,001,000	45%	-	10/17 임시주총 10/30 거래정지 시작일 11/24 재상장	- 분할 재상장 후 미국 설비 투자 계획 발표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수주 공시, 에피스의 신약 파이프라인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 기대
리가켄바이오	150,000	147,400	2%	9월 WCLC 참가	10월 ESMO 참가(ICSUDA) 12월 ASH 참가(Cstone) - Fosum 유방암 P3 완료, 조건부허가신청 - J&J P1 종료, 옵션행사여부	- Bio Better, Package Deal의 경우 하반기 전체 모멘텀 보유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알테오젠	550,000	438,500	25%	9/23 할로자임 특허 보정 9/23 키트루다SC FDA승인	-	FDA승인(Reference 획득), 특허 보정(무효심판승패 가능) 시기에 신규 파트너사 등장 예상
디앤디파마텍	NR	157,400	-	9월 내 Metsera의 경구비만약 P1 IND 신청/승인 기대	10월 Obesity Week (참석 예정) 11월 AASLD (MASH) 참가 12월 Metsera 경구비만약 결과 공유(4주 투여)	10월 Obesity Week의 경우 경구비만약 개발 주체는 Metsera이므로 직접 참가 및 데이터 발표하는 것을 기대 11월 AASLD는 디앤디파마텍가 자체 개발 중인 MASH 치료제의 데이터를 발표
한미약품	400,000	303,000	32%	9월 EASD 참석 - HM15275, 17321 등 비만치료제 FDA P1 IND 신청	10월 Obesity Week - 에페글레나타이드 탐라인 결과	9월 EASD에는 저분자화합물 경구제 파이프라인 (HM101460)이 추가됨 - 하반기 비만치료제 이벤트 보유 3Q, 4Q 실적 상승 전망
셀비온	NR	27,000	-	9월 초 Pocuvotdie 국내 P2 탐라인 발표	11월 최종보고서(CSR) 수령 → 조건부허가 신청 - 키트루다 병용 국내 IND승인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1H26 이후 예상)
SK바이오팜	130,000	98,600	32%	-	- 미국 엑스코프리 확장 임상에 따른 BLA 신청(추정) - 엑스코프리 한국 허가 획득	- 금리인하 및 환율하락으로 2nd Product 도입에 대한 기대감 - 엑스코프리의 4Q까지 매출 꾸준한 상승세 전망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6,690	-	GI 301 한국/일본 P2 IND 신청	10월 ESMO 참가	- GI 102: SC제형 P1b, 키트루다 병용 P1/2(초기),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펩트론	NR	309,500	-	- 릴리와 본계약 체결 가능성 - 제2공장 착공	10월 PODD 참석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2공장 착공할 것으로 전망
인벤티지랩	NR	44,400	-	베링거인겔하임 LO 가능성	10월 PODD 참석	9월20일 제2회차 CB 전환일 (16%) - 단 10월 27일 PODD 학회 참석 및 LO 가능성으로 인한 추가 상승 모멘텀 보유
지투지바이오	NR	165,100	-	9월14일 1개월 락업 해제 (39.2%) - LO 가능성 제기됨	10월 PODD 참석	8월14일 상장
인투셀	NR	30,450	-	에피스의 신약 개발 계획 발표	11월 ADC 학회, BIO-Europe 참가	자체 파이프라인은 ITC-6146RO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및 관련 분쟁 이슈와 무관

주1: 지아이이노베이션은 IPO주관사 업데이트 종목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24	BUY	1,450,000		
25.5.13	BUY	1,310,000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150,000	-10.10%	-5.13%
24.7.25	BUY	1,050,000	-7.83%	3.52%
23.10.5	BUY	950,000	-18.88%	-7.05%
23.9.2	1년 경과		-	-
22.9.2	BUY	1,150,000	-30.30%	-21.1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알테오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8	BUY	550,000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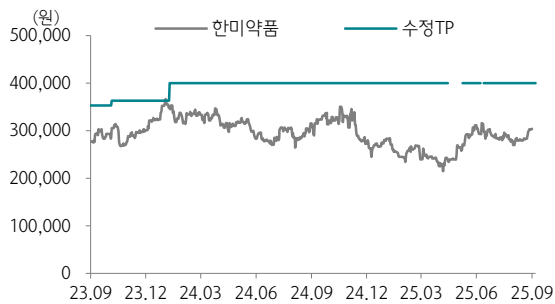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5.13	BUY	150,000		
22.12.28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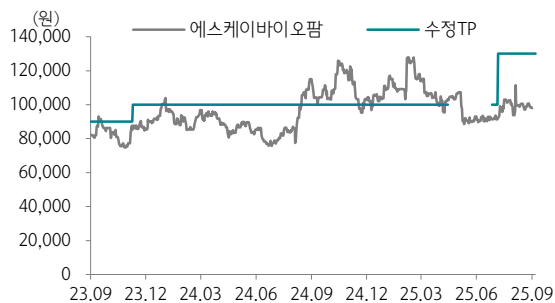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6.13	BUY	400,000		
25.6.9	Not Rated	-	-	-
25.5.9	BUY	400,000	-26.51%	-22.13%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10	BUY	400,000	-21.74%	-11.75%
24.1.5	BUY	363,019	-4.14%	-4.00%
23.10.6	BUY	363,019	-16.21%	0.96%
23.4.6	BUY	353,207	-16.15%	-6.81%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7	BUY	130,000		
25.6.27	BUY	100,000	-7.70%	-6.30%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6.59%	25.90%
23.7.17	BUY	90,000	-6.00%	10.78%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5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89%	4.11%	0.00%	100%

* 기준일: 2025년 08월 29일